

1.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2.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3. 기존주택을 전부해체 한 후 기존보다 규모를 더 크게하여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
4.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5.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6.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7.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8.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
9.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

매일정리노트(O, X) 정답

1. (X)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다.
2. (X) 개축이 아니라 재축에 대한 설명이다.
3. (O)
4. (O)
5. (X)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 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6. (X)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즉, 동시 충족 요건이 아니라 30층 이상이던지,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던지 둘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층건축물이다.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 로 해야 옳다.
7. (X)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가 아니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8. (O)
9. (O)